

흐르는 강물처럼

2022년 8월 6일 오후 6:31240 읽음

<단상>

친구를 울린 유행가



약속 장소에 가니 뜻밖에도 친구는 혼자가 아니었다.
시집간 두 딸과 부인까지 대동하여 양곱창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 딸내미들이 양곱창을 좋아한다기에.....

가족을 이끌고 나타난 이유치고는 평소의 친구답지 않았다.
묘한 기류가 느껴졌다.
서울로 시집간 큰 딸이 마흔이 넘었고
애기가 하나인 작은 딸은 서른 다섯.....
그러나 두 딸이 초등생과 유치원 시절에 이혼을 결심하고
미장원에 데리고 갔던 친구였다.
치렁치렁한 딸내미들 머리카락을 자르기 위해서였다.

— 그때 내 아인나... 다른 거는 문제가 없는데
아침마다 딸내미 머리 빗겨주고 묶는 거는 자신이 없데....
그래서 짧게 단발을 시킬라고 미장원에 데리고 갔더라.

그 딸들이 장성하여 시집을 가도록
그토록 원하는 이혼을 완수(?)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다.



세 모녀와 우리는 각각 자리를 잡고 곱창을 먹었다.
큰 딸이 우리를 향해 계산은 자기가 할 테니 맘껏 드시라며 웃었다.
잔잔한 웃음기를 머금긴했지만 가운데 앉은 부인의 얼굴은 밝지를 못했다.

—예쁜 딸을 셋이나 두셨어요?

양곱창집 여사장의 친근감을 풍기는 질문에 친구는 큰소리로,

—어허, 가운뎃 거는 아이라카이...

—어머나 그럼 사모님이라고예?

—어느 모티로 봐서 딸내미로 뵈능교?

여사장의 의문은 우리가 아니었다.
친구는 대머리에다 희끗희끗한 턱수염으로 뒤덮였고
8살 연하의 부인은 아직도 생머리를 하고 있다.



80년대 초,
늘씬한 키에 미인인 부인은 국내 굴지의 A 화장품회사 판촉사원이었다.
나이트 클럽에서 팡파르를 울리며 생일 축하를 해주는
친구의 통 큰 씬씬이에 '남자답다'며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다.

-내 눈깔 내가 찢렸지.....

이후로 친구는 자기 눈을 찢은 손가락을 원망하는 세월을 보내며 살았다.



-내 이 편의점만 정리되면 이혼한다.
지는 지 팔 흔들고 나는 내 팔 흔들며 살기다.....

해운대 등지의 대형 호텔과 아파트 단지의 설비 공사를 도맡아 하던 친구,
그러나 경기 침체와 더불어 일감은 줄어들었고
궁여지책으로 고향에 내려가 부인과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였다.
다행히 시골 읍내의 편의점 매출치고는 상당하였고
2~3 년만 하고는 때려 친다던 편의점은 어느 덧 10 년이 넘었다.
따라서 이혼도 10 년이 유예되었다.



-여기가 비록 촌구석이지만 악의 소굴이다.

친구가 지목한 '악의 소굴'은 모텔이 모여 있는 곳이었다.
 편의점과 모텔과의 상관관계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장사는 잘 된다고 하였다.
 빨리 정리하고 이혼할 속셈인 친구와는 달리
 부인은 황금알을 낳는 편의점을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벌초나 묘사 때 고향에 들리면 친구는 절박하게 하소연을 하였다.

-미치고 환장하겠다!

-왜? 뭇 때문에 또 그라노?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예사고 고집은 얼마나 센지.....

-여자들도 나이가 들면 억세진다 안 카더나. 니가 참고 살아야지.

-내가 참을성이 없어서 이라는 줄 아나?

쇼핑 중독증이 있다는 소리는 일찍이 들었다.
 10년째 빈 아파트로 비워두는 부산의 아파트,
 아무리 전세나 월세를 주자고 해도 꿈쩍도 아니하는 것 하며
 저장강박증까지 더해져 온 집안에 쓸데없는 물건들 때문에
 발 디딜 틈이 없다는 것이었다.
 더구나 배달시켜 먹은 빈 용기를 버리지 않고
 깨끗이 세척하여 쌓아두는 것에는 친구는 수시로 폭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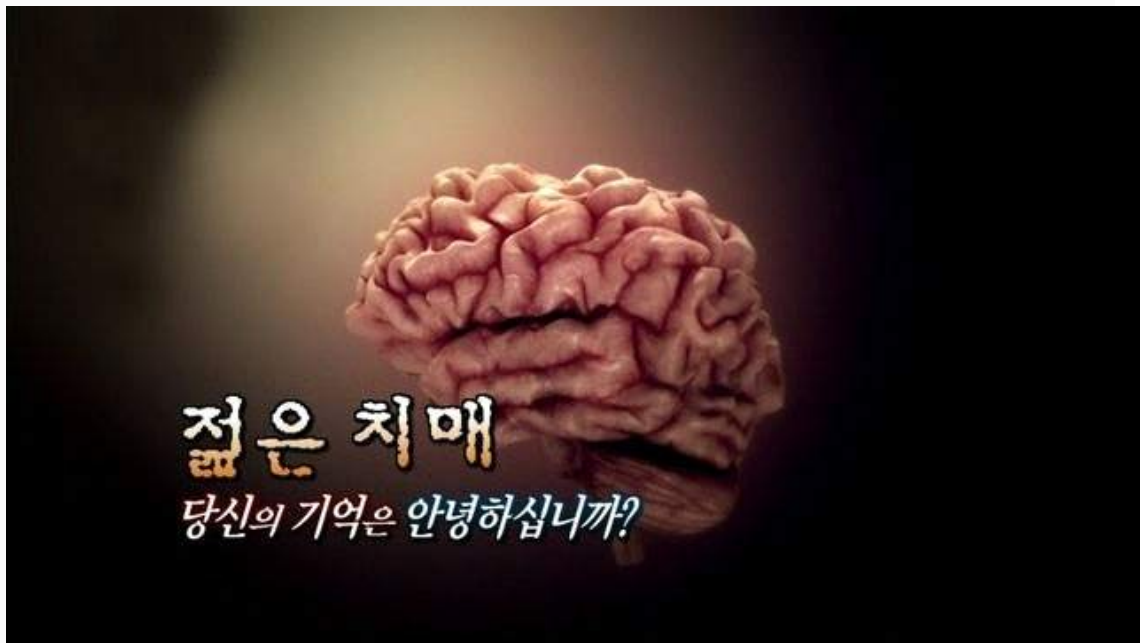
장소를 옮겨 2 차에 들린 포차에서 친구는 그간의 사정을 밝혔다.

-더구나 기억력까지 없어져 이상하다 했는데....

며칠째 시골 숙소 아파트 계단 앞에 비를 맞고 있는 택배 상자를
무심히 살펴보니 바로 부인 앞으로 배달된 상자였다고 하였다.
내용물은 상표가 주렁주렁 달린 청바지와 잡다한 옷가지였는데
자신 앞으로 배달된 택배도 모르는 지경이라 친구는 흥분하였다.

지난 6 월말, 마침내 회사와 힘든 협상 끝에 타협이 이루어져
편의점을 정리하게 되었고 친구는 숙소 아파트에 산더미처럼 쌓아둔 짐을
고향의 이웃에 몽땅 나눠주고 부인이 고집하는 짐들만
여러 차례에 걸쳐 부산에다 짐을 다 옮겨 놓았다.

이제 이혼하는 순서만 남았다.
평소 딸내미들도 엄마의 성격을 아는지라
아빠를 편들어 이혼하라고 격려(?)하는 상황이었다.



유방암으로 투병하던 친구의 여동생이 사망한 것은 지난 5 월이었다.
친구의 형제자매 중 유일하게 고향을 지키며 친정 식구들이 모이는
베이스캠프 역할을 하던 여동생의 죽음은 친구에게 커다란 충격이었다.

편의점을 정리하고 무료하게 지내던 부인이
어느 날 친구에게 뜻밖의 항의를 하였다.

-당신은 왜 동생이 죽었는데 얘기도 안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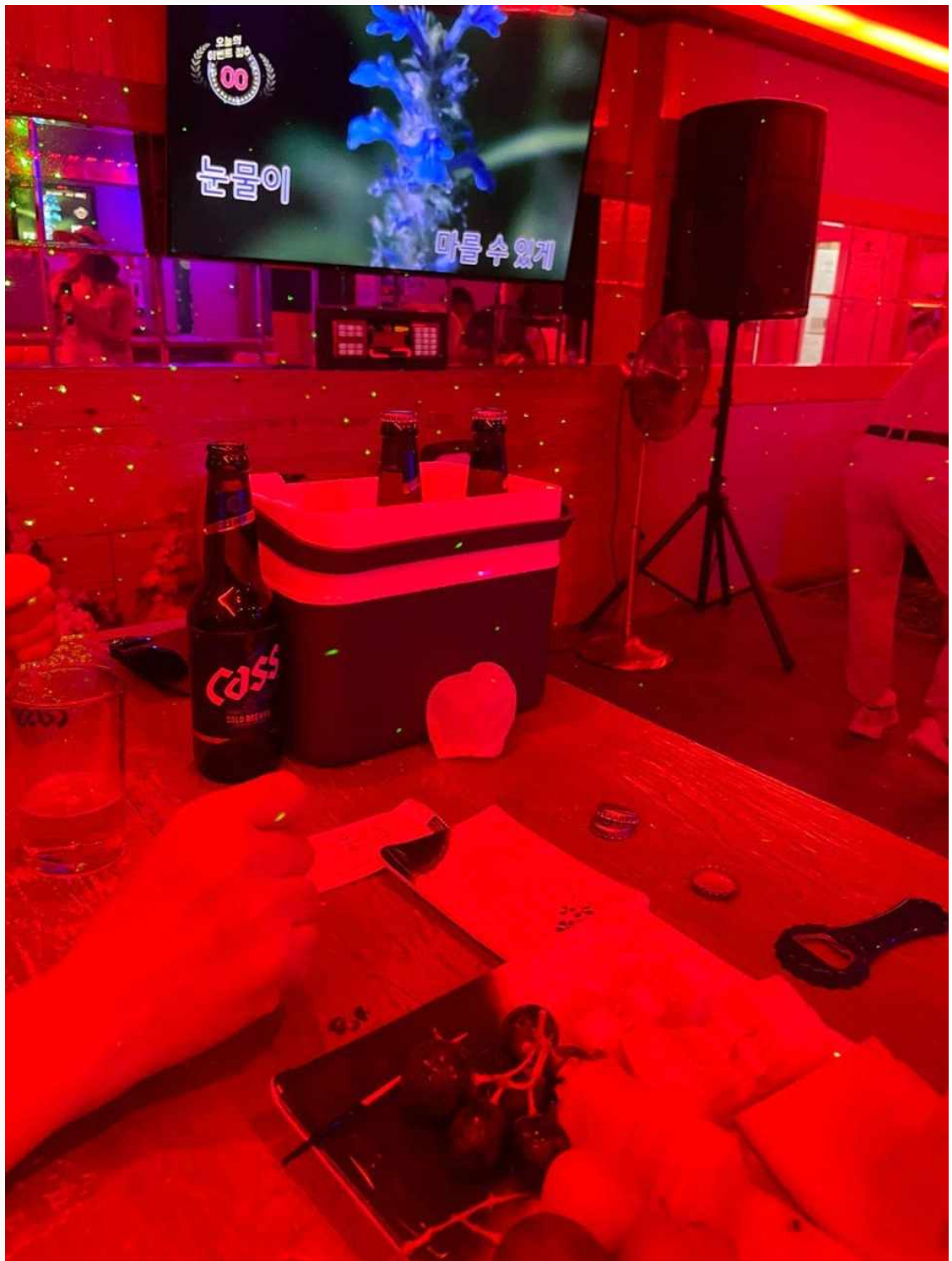
시누이의 장례를 함께 치른 부인의 입에서 나온 소리였다.
누구한테 들었냐니까 논산 친정집의 오빠한테서 들었다고 하였다.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한 친구는
즉시 서울의 큰 딸과 부산의 작은 딸을 소집하였다.
양급창 집에 전 식구가 출동한 사연이기도 하였다.
평소 남편을 불신하여 휴대폰을 절대로 맡기지 않는 까닭에
부인의 은행 계좌와 보험 관계를 전혀 파악할 수가 없었는데
큰 딸을 시켜 엄마 폰의 본인인증을 거쳐 확인한 결과
8 천만 원 가량의 금액도 확인하였다고 하였다.

치매는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제 겨우 64 세!

둘째 딸이 아빠에게 선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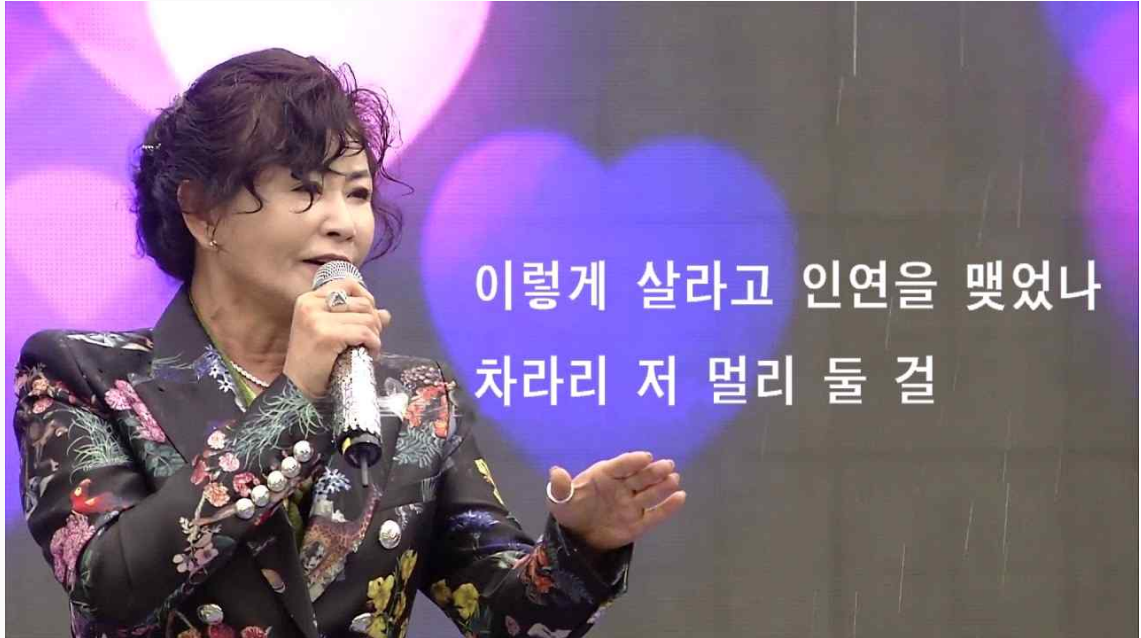
-아빠. 지금 와서 이혼하면 아빠는 남남으로 돌아서면 그뿐이지만
우리는 엄마니까 버릴 수 없어요.
아빠의 이혼은 치매 걸린 엄마를 딸들한테 떠넘기는 것밖에 더 됩니까?

물론 종합병원 검사를 하루 앞두고 있지만
모든 정황은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이었다.
이로써 친구의 희망(?)이었던 이혼은 물 건너가 버렸다.



가자.
노래하러 가자.
이럴 때 일수록 우울하면 안 된다.
노래하러 가자.

평소 잘 가던, 친구에게 처음인 원탁형 테이블이 있는 노래방에 들렀다.
때마침 남녀 손님들이 먼저 자리 잡고 구성지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맞은 편 여자 손님이 진미령의 '미운 사랑'을 열창하였다.
모니터에 미운 사랑의 가사가 나열되었다.



친구는 충혈된 눈으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이렇게 살라고 인연을 맺었나.....

젊은 시절, 부인의 처녀적 모습이 아른거리는 중일까.
친구는 말없이 맥주잔을 들이켰다.

차라리 저 멀리 둘 걸.

그렇으면 오늘의 이 불행한 사태는 없었을 지도 모른다.



미워졌다고 갈 수 있나요....
행여나 찾아올까 봐.

많은 사람들은 미워지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난다.
그러나 친구는 그런 심성이 못 된다.
혹 떠나더라도 후회하며 돌아올 친구다.



그래서 그 끈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놈의 운명,

너와 난 운명인 거야.

안경을 밀어 올린 친구는 눈가를 훑친다.
에어컨이 뽕뽕한 노래방은 선들선들 한기가 느껴질 정도라
땀을 흘렸을 까닭은 없다.
설마 친구는 울고 있는 중일까.....

(이미지는 Microsoft Edge 에서, 일부는 편집하였음)

[구독하기](#)

13



고도를 기다리며
종착역이 가까운데,
안타깝네요.~

1



Norway
친구분께서 부디
힘을 내셨으면 합니다..

1



玄岩 손진수

*
인연
一내가 싹 多 기획한 큰 그림
누굴 원망하리 5!!!



2



남옥희
음음~~~
언젠가 이친구얘기
올린게 생각나네요

치매~
알고선 이혼힘들겁니다
위로하고됩니다
2



박숙희
마음이 고우신 어르신입니다.
상황은 바꿀수 없지만
행복과 괴로움은 마음에
달려있어 여지가 있는듯 합니다. 응원해드립니다.
1



강미애 나무소리
두분을 꾹꾹 묶어 두셨네요. 끝길 인연이 아니신가봅니다. ㅜㅜ